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泰 圭

우리나라 映畵의 痲藥類素材 表現 研究

A Study on expressed aspects of narcotic-related episode in Korean Movies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 痲 藥 犯 罪 學 科

國際痲藥犯罪學專攻

金 錫 在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姜 泰 圭

우리나라 映畵의 痲藥類素材 表現 研究

A Study on expressed aspects of narcotic-related episode in Korean Movies

위 論文을 國際痲藥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 痲 藥 犯 罪 學 科

國際痲藥犯罪學專攻

金 錫 在

金錫在의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목 차

I. 서 론	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III. 결과	5
1. 한국 영화에서 마약류 표현 영화	5
2. 마약류 표현 영화의 장르	7
3. 마약류 표현 영화의 등급	11
4. 마약류 표현에서 선악 개념	11
IV. 고찰	14
1. 마약 흡입 장면의 표현에 대한 선악개념의 부재	15
1) 영화<바이준>의 대마초 흡입 장면	15
2) 영화<세기말>의 쾌락을 상징화하는 도구로서의 마약류	17
2. 마약의 금전적 가치(환금성)에 주목하는 시각	19
1) 마약류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영화<정글쥬스>	19
2) 마약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는 영화<2424>	20
3. 연구에 사용된 마약류 표현 영화 분석건해	21
1) 영화 <꼭지판>	21
2) 영화 < 타악기의 계절>	22
3) 영화 <여자 배달부는 고장난 신호등>	23
4) 영화 <언제나 그 자리에 >	23
5) 영화 <코리안 커넥션>	24
6) 영화 < 흑설 >	24
7) 영화 < 무 >	25
8) 영화 < 검은도시>	26
9) 영화 < 제5의 사나이 >	26

10) 영화 < 열아홉 절망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노래 >	27
11) 영화 < 달빛타는 여자 >	27
12) 영화 <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	28
13) 영화 < 아그네스를 위하여 >	28
14) 영화 < 제3구역 >	29
15) 영화 < 복수혈전 >	30
16) 영화 < 비처럼 음악처럼 >	30
17) 영화 < 여비서클럽 >	31
18) 영화 < 황홀한 유혹 >	31
19) 영화 < 특명 미녀군단 >	32
20) 영화 < 요절복통 신양반던 >	32
21) 영화 < 암흑가의 무소속 >	33
22) 영화 < 웨스턴 예비뉴>	34
23) 영화 < 투캅스>	34
24) 영화 < 매춘 4 >	35
25) 영화 < 두목 >	35
26) 영화 < 테러리스트 2 >	36
27) 영화 < 뽀아종>	37
28) 영화 < 불새>	37
29) 영화 < 블루스 >	38
30) 영화 < 물위의 하룻밤 >	38
31) 영화 <바이 준 >	39
32) 영화 < 세기말 >	39
33) 영화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	40
34) 영화 < 진실게임 >	41
35) 영화 < 컷 런스 딥-THE CUT RUNS DEEP >	41
36) 영화 < 짱패법칙 >	42
37) 영화 < 친구 >	42
38) 영화 < 공공의 적 >	43
39) 영화 < 정글쥬스 >	44
40) 영화 < 2424 >	45

V. 결론.....	46
------------	----

참 고 문 헌.....	48
--------------	----

ABSTRACT

그림 및 표 목차

<그림 2-1> 1990~1996년 마약류 소재 표현 영화	5
<그림 2-2> 1997~2002년 마약류 소재 표현 영화	6
<그림 2-3> 장르별 분류	7
<그림 2-4> 마약 밀매단의 등장 유무	8
<그림 2-5> 멜로 영화에서 마약류 표현 양상	9
<그림 2-6> 등급별 분류	10
<그림 2-7> 적대감별 분류	12
<표 2-8> B형 분류 사항	13

I. 서론

마약류의 본격적인 대중성은 고대의 민속처방과는 달리 19세기 전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당시까지 천연알칼로이드(식물성염기)로 존재하고 있었던 아편으로부터 마약인 모르핀을, 코카잎으로 부터는 코카인을 추출이 되고서부터 볼 수 있다. 1) 나아가 합성약화학의 발달과 더불어, 엑스터시(3,4-metylenedioxymethamphetamine:MDMA)와 같이 암페타민류 등의 신종마약류의 출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연물과 인간 화학 지식의 축적으로서의 새로운 발견 혹은 창조의 미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또 다른 금단의 열매가 돼버리고 말았다.

또한 마약중독이라는 질환 자체는 마약에 의존하게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며, 그 행위의 근원은 약물 자체의 탐닉성 및 중독자 자신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의타적으로 되는 데 있다고 한다.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인지도, 또는 마약의 정책 등 많은 제도적 미비점은 물론 마약류 대상 자체의 선악개념의 모호성, 또는 선택적 판단준거 설정의 논란성 등이 예비중독자 또는 일반 비사용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실 전달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노력부족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예술 매체 중에 가장 대중적이며 그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영화 매체는 마약이라는 소재를 다양하게 표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마약이라는 소재가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는 약물 또는 화합물이며 그 표현 정도에 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특별심의 기준,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기준,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 기준 등이 관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술로서의 표현과정에 부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영화 심의의 경우

그간 마약소재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이 제약되어 온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표현 방법의 심의 표준은 문자표현과는 달리 영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메시지의 전달 과정으로 그 예술성과 내재된 위해성(영국에서는 광의의 음란성)의 상호 관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실로 “표현의 자유” 개념은 17, 18 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유주의 기본 철학에서 배태되었고¹⁻¹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리적 심의는 음란성(obscenity) 위주로 논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¹⁻² 더구나 최근 10여 년 사이 우리나라 영화소재의 다양성 속에, 일탈 문화의 표현 소재 중의 하나인 마약류를 소재 또는 부소재로 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어온 형태를 정리하고 거론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약류를 소재 또는 부소재로 다룬 일련의 우리나라 영화들을 분류해 보고자 하며 그 영화들을 해석가능한 범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민성기, <마약류 통제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2, 2 p1

1-1) Fred S. Sibert, Theodore Peterson,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1956), 강대인 역, ‘언론의 4 이론’, 나남, 1992, p.62.’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 속에서 주소재 또는 부소재로서 사용되는 마약류의 표현 방법 혹은 마약류가 다루어지는 시각을 분석하기 위해 1990년 우리나라 영화를 기점으로 2002년작까지의 우리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 영화 연감”을 기준으로 제작 신고된 영화들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첫째, 선정된 범위(1990년부터 2002년 까지)의 한국영화에서, 소재로서 사용된 마약류 영화의 연도별 분포 및 비율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전체 마약류 표현 영화는 다시 세분화되어 장르별 분류와 등급별 분류,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도를 분명한 악의 소재로 다룬 경우와 선악 이분적 개념이 배제된 경우의 구분을 해 보았으며 13년 사이에 우리 영화가 마약류를 다루었던 방식을 연대식으로 분류해 보았다.

둘째, 마약류가 소재로서 사용되고 표현된 우리 영화들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마약이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영화에서 마약이 전체의 주제와의 상관성을 알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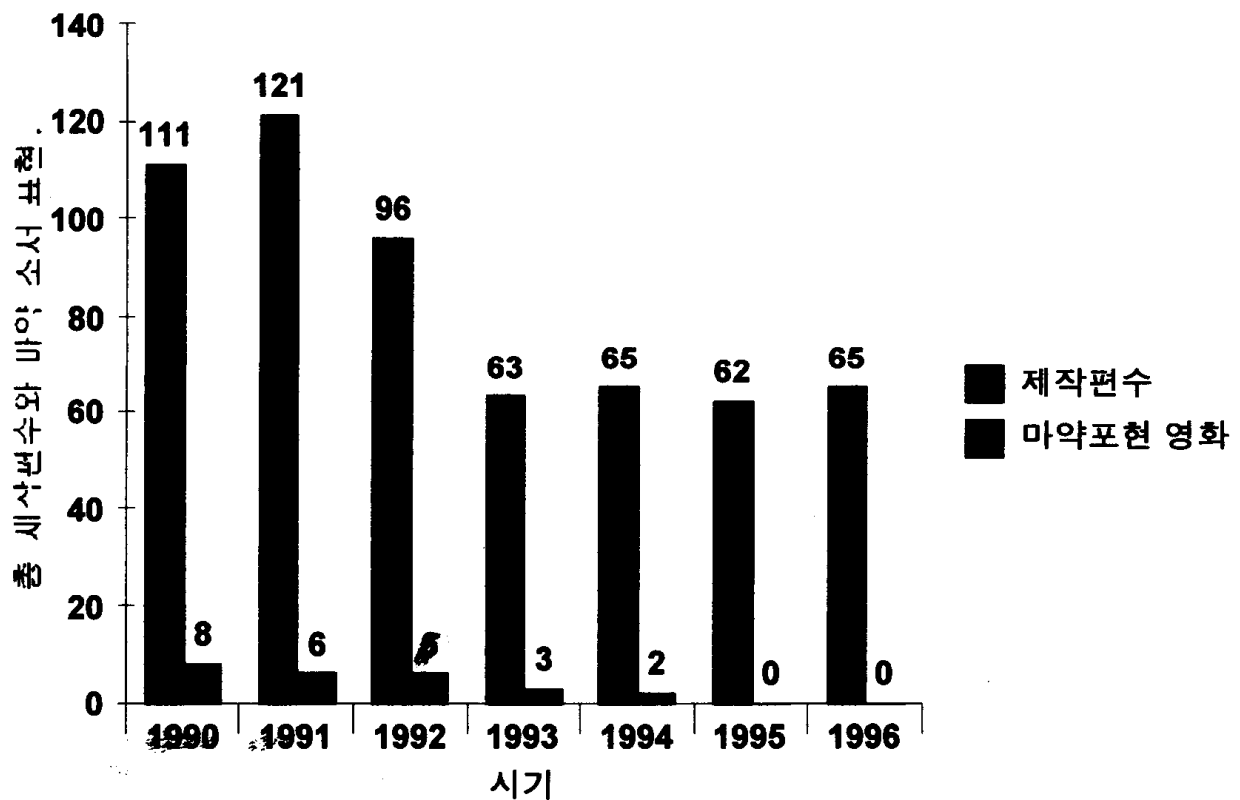
¹⁻²)대법원, 1995.2.10 판결, 94도 2266., Ibid., pp. 210~211. 재인용/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2 고단

그리고 분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메시지 전달에 있어 비중이 큰 영화들을 선별하여 표현 또는 시각차이를 제작자의 견해추정과 메시지 전달의 심각성(또는 위해성)들을 알고자 했다.

III.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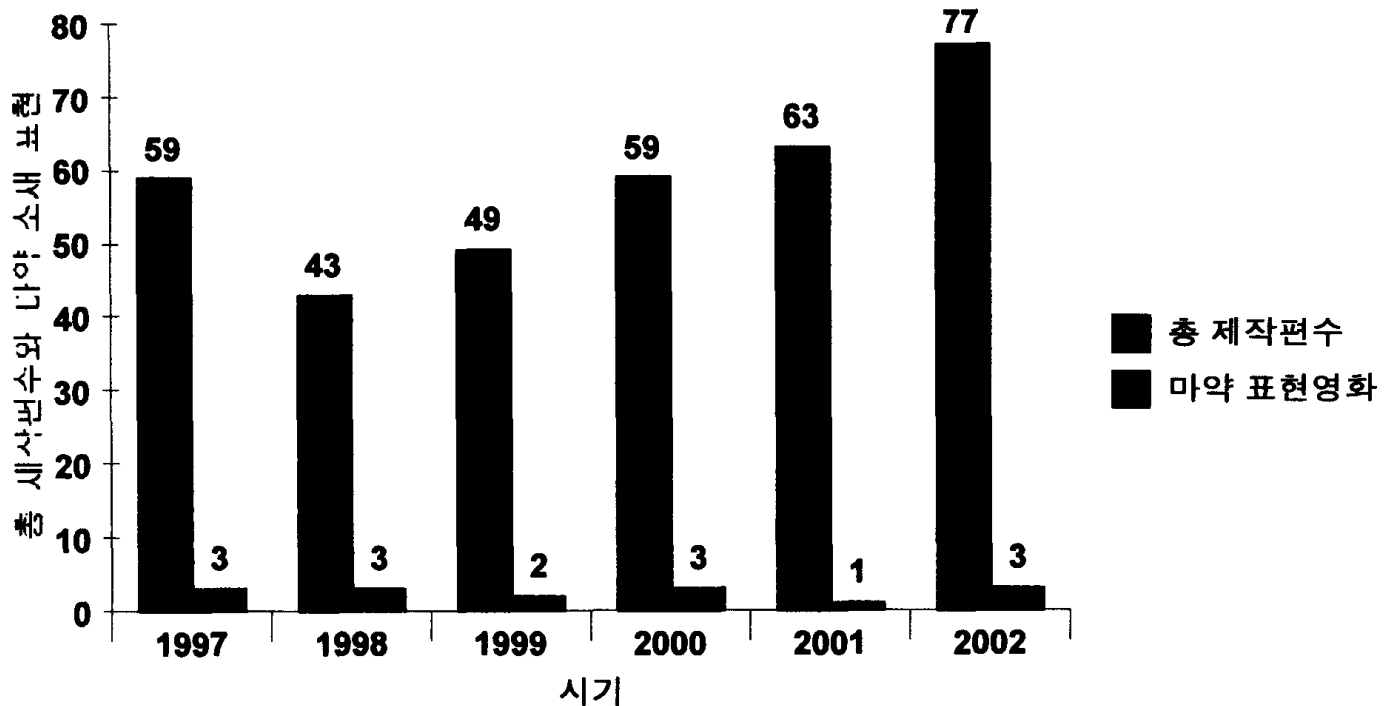
1. 우리 영화에서 마약류 표현 (1990년부터 2002년까지)영화

<그림 2-1> 90~96년의 마약류 소재 표현 영화.



자료: 한국 영화연감 1990-1996

<그림 2-2> 97~02년의 마약류 소재 표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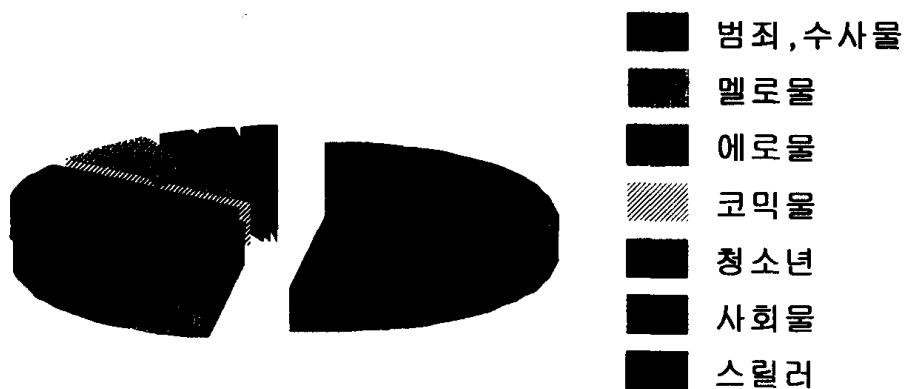


자료: 한국 영화연감 1997-2002

그림 2 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제작된 한국 영화 중에서 마약류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영화를 구분하였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전체 우리 영화 제작 편수에서 마약류 표현 영화의 비율이 최대 7 % 이내의 범위로 적은 편수라는 것과 마약류를 표현한 영화의 연대적 추세는 전체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의 증감에 같은 정도로 제작되어 시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가 100편 이상을 넘었었던 1990년과 1991년 ,96편이 제작되었던 1992년까지의 마약류 표현 영화

가 8편에서 6편을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영화제작이 감소한 1993년부터는 전체 제작 편수의 감소는 보이지만 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정된 13년 기간 동안 제작된 한국 영화가 총 933편이었으며 이중 마약류를 표현한 영화가 40편(4.28%)에 불과하였다.

<그림 2-3> 장르별 분류



장르 분류 기준: 한국 영화 연감의 분류 기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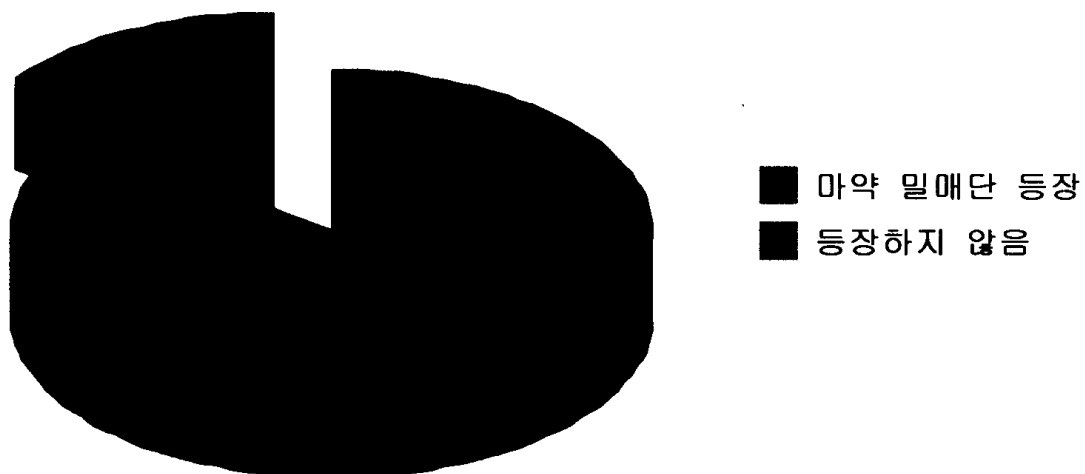
2.. 마약류 표현 영화의 장르

그림 2-3에서와 같이, 총 40편의 마약류 표현 영화 중 과반수를 넘는 21편이 ‘범죄, 수사물’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함께 멜로물에도 10편이 편중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영화에서 인식되어 온 마약의 이미지(또는 메시지)의 전달성이 이 두 가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범죄, 수사물’에서 선악 이분구조에서 주인공과 대치되는 세력으로 설정되는 마약 밀매단을 묘사하기 위한 소재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주로 “멜로” 영화속에서의 내러티브상 주인공의 타락과 파멸의 상황(갈등 또는 파국단계)에 놓였

<그림 2-4> 마약 밀매단 등장 유무



등장하지 않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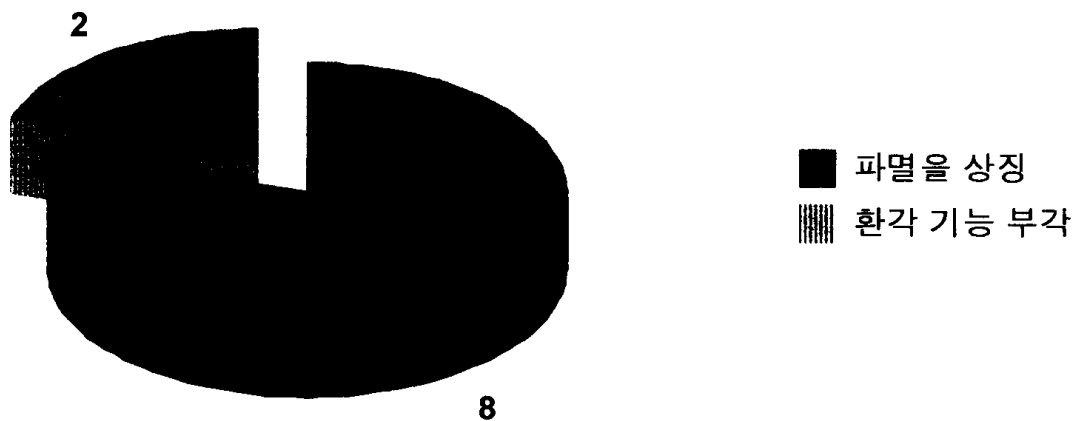
영화 <컷 런스 딥>, 영화 <친구>, 영화 <공공의 적>
을 때 이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재로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림 2-4에서는 21편의 범죄 수사물 관련 영화 중에 마약 밀매단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조사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3편을 제외한 17편에 마약 밀매단이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화<코리안 커넥션>처럼 마약 수사관들과 마약범죄조직의 대립 상황을 그린 영화가 그 것이며, 영화 속에서 마약 밀매단은 언제나 처단되어야 할 이른바 ‘악

<그림 2-5> 멜로 영화에서 마약류 표현 양상

해당영화



마약류의 환각 기능 표현 영화
영화 <바이준>, 영화 <세기말>
의 화신’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장르에서 마약류 표현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범죄 수사물’에 있어서 대부분의 마약류에 대한 표현은 마약범죄조직과 연관 지어진 것으로서 관객들이 마약에 대해 가지고있는 악의 개념으로서의 마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 에서는 멜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마약류 표현 양상에 대한 그림인데,

10편의 멜로 영화 중 8편이 극중 인물의 파멸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편이 마약류의 환각 기능만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범죄 수사물’에서 마약류의 표현 양상이 관객들이 가지고 있을 마약류에 대한 악의 개념으로 나타낸 것처럼 ‘멜로물’도 같은 모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주인공의 파멸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마약류의 표현 양상은 마약류가 가진 악의 기능

<그림 2-6> 등급별 분류

해당영화



15세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

영화<열 아홉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 영화<투캅스> 영화<2424>

에 주목을 했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 2편만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기능이 아닌 단지 환각 기능 위주의 묘사 즉, 선악의 이분법으로 다루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3. 마약류 표현 영화의 등급

등급별 분류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관람 등급물의 92.5%를 차지하였다. 마약류를 소재로서 사용하는 영화들이 ‘범죄, 수사물’과 ‘멜로물’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 영화가 18세 이상관람가 등급이 많았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약소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 관람용 영화의 제작편수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15세 등급으로는 7.5 %로서 3 편이 조사되었으며, 해당하는 영화<열 아홉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는 청소년물, 영화<투캅스>는 코믹적인 상황을 강조한 ‘범죄, 수사물’, 영화<2424>는 전형적인 코믹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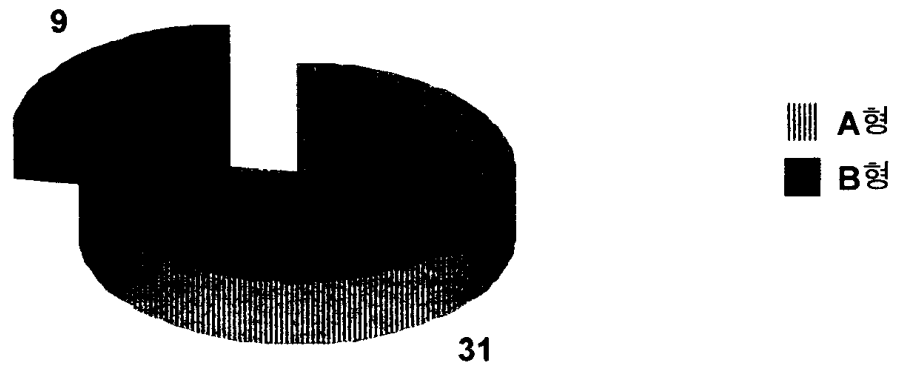
4. 마약류 표현 영화의 선악 이분적 분류

① 분류 기준

A형: 마약류의 사회악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영화들. ‘범죄, 수사물’에서는 마약 밀매단이 취급하는 장물로서의 범죄수단으로 표현되며 ‘멜로물’에서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 관객들이 마약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악의 인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영화들.

B형: 마약류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선악의 판단메세지를 드러내지 않는 영화. 이들 영화는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역기능적 판단 대신에 단지 마약의 환각 기능, 혹은 금전적인 가치 중심으로 표현한다.

<그림 2-7 > 적대감별 분류



② B형에 해당하는 영화들 분류.

<표 2-8> B형 분류사항

세부사항 영화제목	장르	마약류 흡입장면	마약류 투여방법	영화적 표현방법	극에서 마약의 역할
무 (1990)	범죄, 수사물	없음			금전적 가치
제5의사나이 (1991)	범죄, 수사물	없음			금전적 가치
블루스 (1998)	범죄, 수사물	없음			금전적 가치
물위의하루밤 (1998)	에로물	등장	코흡입	환각작용에 집중	쾌락의 대상
바이준 (1998)	멜로물	등장	대마 흡연	환각작용을 묘사하기 위한 몽환적 느낌	호기심의 대상
세기말 (1999)	사회물	등장	코흡입	환각작용을 묘사하기 위한 몽환적 느낌	쾌락의 대상
컷 런스 딥 (2000)	범죄, 수사물	등장	코흡입	갱들의 주변환경을 묘사하는 수준	주변 환경으 로 설정됨
정글쥬스 (2002)	코믹물	등장	코흡입	모르고 흡입하 는 헤프닝 상황	금전적 가치
2424 (2002)	코믹물	없음			금전적 가치

IV. 고찰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들은 17,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유주의 기본 철학에서 배태되었고,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밀턴, 토마스 제퍼슨 등의 주장들은 당시 봉건영주에 대한 저항으로서 표현활동에 있어서 최소한 입지확보가 필요한 상황¹⁻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헌법학자 토마스 에머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체계는 ‘개인의 자기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사회 구성원의 결정행위 참여하기 위해서, 보다 적합하고 안정된 사회를 성취하고 건전한 분열과 합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의 충돌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의 심의 받지 않은 <오, 꿈의 나라>의 공개상영에 대한 기소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경우 이래 제한상영관의 도입등 영화등급제의 체계등이 이루어 졌다.

마약류 표현의 심사에 있어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특별심의기준에 ‘조직폭력, 마약, 매매춘 등 반사회적 행위를 흥미위주로 지나치게 묘사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 기준에 있어 ‘범죄 수단과 흉기 사용 방법, 약물사용 신중요, 동물학대, 살상장면 취급시 주의요, 미성년자의 범죄 취급시 신중 요’,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기준에 ‘폭력, 범죄, 퇴폐, 비리, 마약, 환각제 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금지’ 등으로 심의 기준에 적용,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에 대한 구체적 세분화가 고

¹⁻³ 김동민,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p14.

려되어 있지 않는 등, 마약류 표현에 있어 개념의 개연성은 여전히 충분한 논의 속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1. 마약 흡입 장면의 표현에 대한 선악개념의 부재

1). <바이준>의 대마초 흡입 장면

최호 감독의 1998년작 영화 <바이준>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서 주요 구성진행 방법을 차용했다고 보며 영화가 지향하는 감성 역시 원작의 느낌에 최대한 다가가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절친한 친구 ‘준’의 죽음으로 삶의 이정표를 상실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 <바이준>은 마약류 중에서 대마초 흡입을 표현하였다. 영화에서 대마초는 기존의 우리 영화들처럼 등장 인물의 타락과 파멸을 묘사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닌 단지 대마초를 흡입한다는 일상적 표현형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 받는 면에서 흡입행위의 선악개념을 유보시킨다고 본다.

영화 <바이준>에서 대마초를 거래하는 공간은 현실과 이질적 공간으로 설정된다고 본다. 영화적 기법으로 효과인 몽환적인 느낌과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느끼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마를 거래하는 장소로서의 상징표현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며 소재의 선악 이분법 범주에 있지 않은 경우로 본다.

감독은 대마거래 장면을 통해서 관객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대마 흡입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느끼게 한다고 보며, 그것은 영화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대마초를 주요 소재로 선택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대마 흡연에 대한 느낌을 최대한 관객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감독은 소재

로서의 마약류에 대한 선악의 개념이 배제하여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대마초에 대한 관객의 적대감을 희석 또는 중요시 하지 않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영화 <바이준>에서의 대마초는 ‘뷰티풀’이라는 은어로 불려진다. 결국 메시지를 전달 받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대마초와 아름다움의 동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사: “뷰티풀을 찾는 이유가 뭐야?” “그까짓 풀 잎파리 찾는데 시덥지 않은 이유가 뭐가 필요해?”)

대마거래 장면에는 ‘대마왕’ 으로 불리는 거래 업자가 등장한다. 이 인물에 대해 영화가 유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 볼만하다. 영화 <바이준>의 대마왕은 어떤 인물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아인식이 분명하며 그만큼의 지배력을 보이는 인물로 묘사된다. 영화 <바이준>의 모든 등장 인물들이 영화매체 속에서 유지하는 긴장감은 자아인식의 부재로 피로워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대마 거래 장면에 잠깐 등장하는 ‘대마왕’ 의 영화에서의 위치는 인물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대마왕에게 있어 대마초는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영화 <바이준>의 주인공인 도기의 대마초에 대한 모욕(대마초에 대한 악의 개념 인식) 때문이므로 관객의 영화 메시지 인지도에 따라 선악의 개념은 영화를 보는자의 몫으로 넘겨진다고 본다.

영화 <바이준>에서 대마초는 말그대로 ‘뷰티풀’ 한 존재이므로 이에 대한 악의 개념은 유보되는 것이다.

즉, 영화 <바이준>은 마약류를 표현하는데 있어 악의 개념을 취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측면에서 묘사한다. 오히려 뉘앙스적인 표현 수단을 사용하여 대마초를 흡입했을 때의

순간적인 느낌을 최대한 관객들에게 온건히 전달하는 데 상당히 할애한 영화로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 이상 한국영화에서 마약류를 표현하는 방법이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점차로 벗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 영화<세기말>의 헤로인 흡입

쾌락을 상징화하는 도구로서의 마약 표현.

많은 한국 영화 속에서 마약은 악의 측면 위주로 표현되어 왔다. 덕분에 어떤 캐릭터의 파국을 묘사하는데 있어 마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적 내부 장치의 도구가 되어 왔다. 마약이 가진 내거티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며 사회 교도 또는 선도 기능을 수행하는 영화로서의 역할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화 내적으로는 내러티브의 유연한 진행을 위해 관객이 마약에 대해 가지고있는 사회 악(惡)으로서의 기능을 이용 또는 차용했던 것이며 대외적으로 영화의 대중성을 이용한 계몽성이 제작 자체 또는 영화 심의 과정을 통하여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가 구체화 되면서 심의 경계선이 조금씩 물러나고 표현 수위에 대한 판단정도의 눈높이가 다양화되면서 마약류의 선악 개념의 대립구조 표현 대신에 다양한 해석의 메시지로 표현된다. 마약이 가진 환각 작용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 명의 마약 중독자를 바라보는데 있어 그전까지의 우리나라 영화들은 중독자의 환각 작용의 효력이 끝난 뒤에 오는 엄청난 절망감과 상실감(갈등과 파국의 구조)을 영화의 소재로서 전달하던 종래의 방식이 아닌, 마약에 중독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에 두지 않고 주변문화, 또는 구조에 두는 설정과, 환각 기능들에 관한 예술적 표현 기법의 다양성으로의 관심 전이를 뜻하는 것

이다. 이것은 본래 영화라는 매체가 일반 관객들에게 즐거움 또는 재미(Pleasure)를 주기 위한 오락물로서 기능한다는 시각과 연관지어 볼 때, “마약사용 = 쾌락(Pleasure)”의 등식과 관련하여 마약류의 사용 인식도, 또는 마약류의 위해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세기말>에서 소재로서 쓰인 마약류의 역할은 기존의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파국의 소재로서가 이미 아니다. 이 영화에서는 쾌락의 도구로서 표현되었다. 마약을 흡입하게 되는 소령에게 있어 마약은 파멸의 도구가 아니다. 세칭, 원조 교제와 부자(父子)사이 근친 관계 등의 소재로서, 즉 “육체적 쾌락추구 = 파멸”을 파국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송능한 감독은 소령의 마약 흡입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마약의 환각 작용을 쾌락의 의미로 해석한다. 마약을 흡입한 소령의 청각적, 시각적 일체감을 관객에게도 공유시키기 위해서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소령의 머리 속에서 상상 장면으로 묘사되는 과거 회상 장면은 빠른 전개 방법을 통해서 몽환적인 느낌의 공간적 거리감이라 던지 화면의 질감을 특이하게 활용과 영화 매체의 강한 전달력을 사용함으로써 마약흡입의 간접경험을 표현하는 데 매우 사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영화<세기말>은 마약류가 가지고 있는 환각적 쾌락 기능을 영화 보기에 대한 오락적 즐거움으로 전이시킨 예로 볼 수 있다. <바이준>의 등장 인물들이 마약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영화<세기말>에서의 소령은 거기서 더 나가 마약류가 중독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종속적 탐미주의 쾌락까지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도 마약류의 표현이 더 이상 계도적이거나 선도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며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2. 마약의 금전적 가치(환금성)에 주목하는 시각

1) 마약류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영화 <정글쥬스>

영화<정글쥬스>에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사용을 소재로 하였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이 약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각종 각성제와 해열제들을 조합해서 탄산음료에 타서 만든 환각제로서 오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약물의 배합을 불법 오남용자들의 은어로 ‘정글쥬스’ 라고 부른다. 영화의 제목으로서 차용하고 있는 <정글쥬스>는 마약이 가진 탈법성과 일탈성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그런 이유로 영화<정글쥬스>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영화<정글쥬스>에는 기태와 철수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훔치려 하는 장면과 나아가 지급기계 자체를 탈취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범법 행위를 개시 하기전 이들은 근처 약국에 불법 침입하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약국 또는 병원에 불법 침입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고 보이며, 실제 OTC약품(Over The Counter: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품)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수회 복용분을 일회에 사용할 때 환각효과가 있을 수 있다) 훔친 각종 각성제와 해열제를 섞어서 만든 환각제 ‘정글쥬스’ 를 마시고 대담하게 범행을 개시한다는 설정이다.

영화 <정글쥬스>는 마약이 가진 환각 기능중에 계획된 행동을 대담하게 시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설정을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용기를 내서 행동하지 못할 일을 마약의 힘을 빌려서 달성하는 이들에게 있어 준마약류(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약물군)는 더 이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물건이 아닌 회화적 단순 도구로서 묘사되며, 심각한 고뇌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영화가 우리의 현실에

대한 거울이 될 수 있듯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 또는 인식이 우리사회의 담배와 술에 대한 지나친 관용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영화에서의 술, 담배, 약물, 나아가 폭력 등의 표현 방법들도 표현의 자유와 병립하여 깊이있는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약이 가진 환각성을 이용하며 그것이 범죄자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표현하는 영화<정글쥬스>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영화계가 국제적인 영화제들에서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변화를 보이는 우리 영화의 심의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오락성과 건전성의 조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마약류가 가진 유혹성(attractiveness)을 전달 또는 전이할 수 있는 여지를 영화<정글쥬스>를 예시로 영화 제작자들의 표현 다양성과 마약류 사용 표현에 있어서 적정성이 다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화<정글쥬스>에는 가짜 마약이 소재로 사용되는 데, 가짜 마약을 주인공이 복용하면서 진짜처럼 표현하며, 또한 진짜 마약을 흡입하는 소재도 그것이 마약인줄 모르고 단지 밀가루 가루로서 오인하고 흡입하게 된다는 설정은 마약이 가진 사회적 중압감을 영화의 대중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회화적 상황으로 대치시켜 표현하였다. 이렇듯 영화<정글쥬스>는 마약사용소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심각성을 배제함으로서 메시지의 전달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2) 일확천금의 소재로서 영화<2424>

마약 밀매단을 소탕하기 위해 활약하는 마약 수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2424>에는 마약을 중심으로 선악이 구분된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마약 밀매단이 등장하지만 마약류의 직접사용의 표현은 없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마약 밀매단이 차지하려는 물건은 마약 대신에 다이아몬드로 설정되어 있다.

영화<2424>는 마약의 일확천금성을 소재로 사용한 대표적인 영화이다. 영화는 장르상 코믹물이며 심의 등급으로는 15세 등급이다. 마약이라는 소재는 다이아몬드라는 소재로 치환되어 표현된 것이다. 마약류를 등장시키지 않고서 동시에 마약류 흡입에 대한 표현을 건너 뛸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로 치환된 마약은 영화 내내 일확천금의 가치로서만 관객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확보하려는 악의 개념인 마약 밀매조직이라는 설정으로 표현에 성공하고 있다.

심의 기준에 있어, 등급별 분류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관람 등급물의 92.5%를 차지하였다. 마약류를 소재로서 사용하는 영화들이 ‘범죄, 수사물’ 과 ‘멜로물’ 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 영화가 18세 이상관람가 등급이 많았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는 마약소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 관람용 영화의 제작편수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15세 이상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열 아홉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는 청소년물, 영화<투캅스>는 코믹적인 상황을 강조한 ‘범죄,수사물’ , 영화<2424>는 전형적인 코믹물이라는 사실이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다.

3. 연구에 사용된 마약류 표현 영화 분석견해

1991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1). 영화<꼭지판>

제작년도: 1990

혜지, 영석, 세민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혜지는 양부모의 사랑속에 여기자로 성장하지만, 세민은 생모에게 외면당한 충격으로 범죄세계에 발을 들인다. 그리고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영석은 거지, 저능아 등을 돌보며 '꼭지판'이라 불리운다. 혜지는 화제의 인물 꼭지판을 취재하다 우여곡절끝에 옛친구 영석을 만나고, 파티석상

에서 보석을 노리고 잠입한 세민과도 다시 만난다. 그런데 영석이 어려운 이들과 살고 있는 개미굴이 악당들의 습격을 받아 그와중에 개미굴가족인 수연이 납치당한다. 세민의 도움으로 수연을 구한 영석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약을 탈취한다. 세민은 빨리 마약을 경찰에 넘기고 모든 걸 정리한 후 멀리 떠날 것을 충고한다. 마약을 찾으려는 조직에서는 개미굴에 불을 지르고 혜지를 납치한다. 그녀를 사랑하는 영석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신으로 약속장소로 향한다. 세민은 마지막으로 한탕해서 타이티로 가려 했으나, 형제보다도 진한 우정으로 맺어진 혜지와 영석을 구하기 위해 발길을 돌린다 2)

표현양상: 소재로서 마약이 사용. 마약 밀대단이 등장하지만 마약 중독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악의 개념의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2).영화< 타악기의 계절>

제작년도: 1990

사육사의 딸 가형은 마현측우소의 예보원으로 근무한다. 미묘한 인연으로 만난 은희는 젊은 의사이며 부자 민노수의 차남이다. 그러나 복잡한 가정환경과 이복형 시현에 대한 열등의식은 그를 마약의 세계에 빠뜨린다. 가형은 그의 재기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바친다. 은희는 가형의 순수를 사랑하면서도 마현의 요화 오중애의 육체에 탐닉하는 자학중세를 보인다. 마약병동에 갇힌 은희의 치료방법은 사랑 밖에 없다. 가형은 자원해서 병동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고는 순결을 잃은 죄책감을 고해하러 성당에 간다. 마현시민들로부터 퇴폐와 타락의 근원으로 피소당한 오중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시현은 간통의 종교적 해석을 구하려 성당에 들렀다가 가형을 보고 열병에 빠진다. 마현의 소문은 가형과 민씨형제의 사랑에 오중애의 처절하고 향기로운 애정행각이 겹쳐지며 부풀어오른다. 3)

표현양상: 소재로서 마약이 사용. 마약 중독자가 등장하며 마약 중독에 대한 간결한 표현이 등장. 악의 개념의 마약. (멜로물 분류)

2)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3). 영화 <여자 배달부는 고장난 신호등>

제작년도: 1990

마약제조범 복동이 갈매기 일당에게 피살당하자 거북이는 복수를 맹세하고 복동의 아들 경수를 찾는다. 아버지를 경멸하던 경수였지만 복수를 위해 헤라를 미끼로 마약 밀매망을 조직한다. 그러나 끈질긴 김형사의 추적에 사랑하는 헤라를 더 희생시킬 수 없다고 느낀 경수는 혼자 갈매기의 본거지로 간다. 갈매기를 처치한 경수는 그의 아들 영길을 노리다 오히려 감금된다. 헤라는 대담하게 영길의 본거지에 침입하여 경수를 구출한다. 경수는 거북과 함께 영길일당과 사투를 벌이고, 김형사도 가세하지만 중과부적이다. 급기야 영길을 처치하려던 경수가 부하의 총탄에 죽는다. 헤라는 통곡하며 영길을 사살하고 김형사마저 사살하려 할 때 거북이의 만류로 오발탄에 숨진다.

4)

표현양상: 마약 밀매단과 수사관이 등장. 단순한 소재차원을 넘어서 내러티브의 중요한 코드로 기능. 악의 개념으로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4). 영화 <언제나 그 자리에>

제작년도: 1990

유명한 패션모델이 꿈인 영아는 홀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간다. 어느 날 히로뽕조직의 일원 두식에게 유혹당한 그녀는 순결마저 잃고 조직의 일원이 될 것을 강요당한다. 주먹세계의 일인자 강백천은 마약중독으로 파멸한 형을 보고 마약조직을 없애려 한다. 그러던 차에 친구 만복이 피격당해 그 배후를 추적하던 중 영아를 우연히 만난다. 그녀는 이미 다른 여자로 변신해 있었다. 한편 히로뽕조직의 총수선 회장은 심복 코브라에게 보안유지와 판매실적을 올릴 것을 명령한다. 영아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결국 조직의 일원이 된다. 백천은 코브라의 일원인 영아를 구하고, 히로뽕조직을 일망타진하지만, 그녀를 끌어안고 죽는다.⁵⁾

표현양상: 마약 밀매단과 마약 중독자가 등장. 마약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감.

³⁾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⁴⁾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⁵⁾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악의 대상으로서의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5). 영화 < 코리안 커넥션 >

제작년도: 1990

어느날 강남 테헤란로에서 포장마차 부부를 치어 죽이고 뺑소니를 친 사고가 일어난다. 이에 분노를 느낀 황동수 형사는 끝까지 추적할 것을 결심하고 젊은 오형사와 합동작전을 벌인다. 그러나 뺑소니 차량이 바로 히로뽕 밀매조직의 벤츠 차였음을 알아내고 패재를 부르는 순간 그들 조직에 의해 오형사가 살해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황동수형사의 과격한 성격을 염려하여 그를 전담반에서 제외시키고 여형사 이미옥과 함께 인신매매사건을 맞도록 한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오형사 살해범에 대한 적개심으로 단독수사를 강행하여 결국 히로뽕 밀매조직의 윤곽을 알아낸다. 결국 그 어마어마한 밀매조직과 뒤에 도사린 비호세력의 횡포를 파헤치고 이미옥 형사의 협조로 밀매조직을 소탕한다. 6)

표현양상: 대표적인 마약 처단 영화. 마약 밀매단을 응징하는 수사관의 활약을 그림.

악의 개념으로의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6). 영화 < 흑설 >

제작년도: 1990

체육과를 꿈꾸지만 세 번이나 낙방한 진이는 우연히 대학원생 민기를 곤경에서 구한다. 민기는 태권도와 격투기로 다져진 진이를 잊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진이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음을 알고 진이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진이는 격투에 휘말려 엉망이 된 채 선불장소에 나온다. 한편 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한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학생들 사이에 히로뽕이 퍼져있음을 안 진이는 경찰과 그 현장을 알아 히로뽕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한다. 민기는 모든것을 해결한 진이에게 또다시 결혼을 청하지만 그녀는 쓸쓸이 돌아선다. 도저히 진이를 차지할 수 없음을 깨달은 민기는 망연자실 바라만 볼 뿐이다. 7)

6)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7)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표현양상: 마약 중독자가 등장하며 마약 밀매단이 등장함. 마약의 중요한 소재로서
기 능. 악의 대상으로서의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7). 영화 < 무 >

제작년도: 1990

범죄조직에서 킬러로 활약하던 용은 신회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러자 보스인 검은 얼굴은 그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신회만을 납치한다. 한편 싸이판의 아라이 일행은 검은 얼굴 조직내의 이사벨라와 공모해서 가짜 히로뽕으로 거액을 손에 넣고, 1년 후 돈을 분배하기로 하고 헤어진다. 감옥에 피신한 아라이는 용에게 나머지 일당을 제거하면 거액의 돈과 검은 얼굴의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출감한 용은 이사벨라를 통해 아라이 일행을 찾아다니지만, 번번히 그보다 앞서는 이들에게 살해당한 일행만 발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은 한국인2세 하나꼬에게 사랑을 느끼고, 이사벨라도 용을 사랑한다. 출감하여 숨겨놓은 돈을 찾은 아라이는 용마저 제거하려 하지만, 이사벨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용은 검은 얼굴의 정체를 파악하고, 아라이에게 빼앗긴 돈을 되찾은 검은 얼굴은 이사벨라까지 죽인다. 그러나 사태가 불리해지자 검은 얼굴은 하나꼬를 인질로 도주하고 용은 뒤를 쫓는다. 추격전끝에 검은 얼굴은 붙잡히지만, 그가 자폭함으로써 하나꼬를 구하려던 용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간다.⁸⁾

표현양상: 마약이 주요 소재로 등장. 마약에 대한 선악 개념 없음.

(범죄, 수사물 분류)

8). 영화 < 검은도시>

제작년도: 1990

국제 마약단 마담 Q와 행동대원 강민과 철호는 홍콩 미스터 Y파와의 히로뽕 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가지만 함정을 눈치채고 그들을 난사한다. 한편 서울에서는 마담 Q파의 유현에 의해 여대생 민지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녀의 애인 김준은 실의에 빠진다. 강민은 하나 뿐인 친구 김준의 갈등이 자신의 조직 때문임을 알고 피

⁸⁾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로워한다. 마약 밀수로 국제범죄조직인 검은 선글라스파, 미스터 블랙파, 미스터 Y 파, 마담Q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을 방불케하는 총격전,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진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유현은 조직의 정보를 빼서 검은 선글라스파에게 판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마담Q는 검은 선글라스파에게 살해당하고 강민은 극적으로 탈출한다. 배신자 유현과 함께 경찰에 추적당하는 친구 강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김준. 결국 강민은 유현을 죽이고 국제경찰의 총탄에 최후를 맞는다 9)

표현양상: 마약 범죄조직이 극을 이끌어가는 특성상 마약에 대한 선악개념을 표현하지 않음. 중요한 주소재로서만 마약을 다룸. (범죄, 수사물 분류)

1991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9). 영화 < 제5의 사나이 >

제작년도: 1991

국제적인 킬러 창은 그의 연인인 웅을 납치한 조직과 협상을 한다. 한국에서 중발된 마약과 웅을 교환하기로 한 창은 마약의 소재를 찾는다.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인 모세는 이미 살해된 터, 그가 살해되던 날 함께 있었던 혜주만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 적군파에 의해 위험에 빠진 혜주를 구해낸 뒤 결국 마약의 소재를 찾게 된 창은 웅과 마약을 교환하기로 하지만 조직의 일원인 웅이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신감으로 실의에 빠진 창에게 혜주는 사랑을 느끼지만 힘든 현실은 이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창과 혜주는 경찰과 조직의 추격으로 벼랑 끝까지 오게 된다. 창은 혜주를 남기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리고 혜주는 절규한다. 10)

표현양상: 마약 밀매단이 등장. 마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감.

마약에 대한 선악개념이 불분명하다. (범죄, 수사물 분류)

10). 영화 < 열 아홉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노래 >

제작년도: 1991

⁹⁾ 1991 한국영화연감, p219, 집문당

불량청소년 준석, 정남, 종수는 '꼰대'라고 함부로 군 학교선생을 폭행한다. 이 일로 준석은 학교선생의 여동생 채옥을 알게 되고 묘한 감정에 빠진다. 사랑은 심한 정신적 갈등을 부르고, 준석은 자신을 돌아보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의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현 사회의 온갖 추악함을 너무 많이 알았고, 학교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었다. 섹스, 마약, 찰나적 쾌락이라는 그물이 너무 촘촘해, 그가 쉽게 빠져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의 친구 종수는 부탄가스를 마시다 폭발사고로 죽고, 정남은 마약을 먹은 환각상태에서 체포된다. 그리고 준석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무작정 채옥을 향해 달려간다. 11)

표현양상: 방황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마약이 사용. 메시지 전달측면에서 마약에 대한 악의 개념을 사용함. (청소년물 분류)

11). 영화 < 달빛 타는 여자 >

제작년도: 1991

강희와 인애, 신자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철민이라는 사내의 제의로 졸부들과 유흥을 벌인뒤 사진을 제시해서 돈을 챙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철민에 관해 의혹을 품게 된다. 이때 철민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데 권력자의 첩이 소유한 건물을 방사장에게 팔아 거금을 챙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사장은 그 건물에서 마약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권력자의 첩이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강희가 간첩인 체하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강희와 방사장의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방사장의 부하인 동팔은 강희 일행을 다 죽이면 건물도, 돈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몰래 침입한다. 그러나 강희의 기지로 모두 죽은 체하자 놀란 동팔은 도망가고 강희와 그 일행은 방사장으로 부터 돈을 받아 도망간다. 철민을 묶어서 버려둔 채 유유히 사라진다. 12)

표현양상: 금전적 가치로서의 마약을 강조함. 소재로서의 마약 사용. (에로물 분류)

¹⁰⁾ 1992 한국영화연감, p274, 집문당

¹¹⁾ 1992 한국영화연감, p260, 집문당

12). 영화 <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

제작년도: 1991

담배연기 자욱한 샌프란시스코의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는 준은 전직 고위층의 자제로 목적도 없이 마약과 도박으로 인생을 소비한다. 클럽 아방궁의 우희는 준에게 호감을 갖고 준의 정부가 애나루가 총격으로 살해된 이후 신문사와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자 연민을 느껴 더욱 가까워진다. 자신과 애나루의 빚을 갚기 위해 준은 라스베가스 카지노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우희와 함께 길을 떠난다. 가는 도중 차가 고장나 사막에 머물게 되자 우희의 아픈 과거에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우희는 되새김없이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준은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가진 돈을 다 잃는다. 마지막으로 우희가 준 돈을 이용, 큰 돈을 따지만,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다. 13)

표현양상: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을 사용. 마약 중독자가 등장한다.

단순한 소재차원에서 마약이 사용된다. (멜로물 분류)

13). 영화 < 아그네스를 위하여 >

제작년도: 1991

유학생 여진은 남편 미호를 살해한 혐의로 한국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그녀의 변호사 승호는 여진이 변론을 포기한 채 사형선고를 받자 깊은 회의에 빠진다. 고민하던 승호는 여진의 혼배성사를 집전한 김신부를 통해 여진의 맑은 영혼을 접하고, 뉴욕경찰이 밝힌 미호의 폭력과 타락에 반감을 느끼며 사건해결을 위해 미국행을 결심한다. 여진과 미호는 학업과 돈벌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나 여진이 건달들에게 무차별 강간, 폭행당하는 사건을 겪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미호는 죄책감으로 술과 마약에 취해 그녀를 괴롭히다가 여진의 칼에 최후를 맞은 것이다. 승호는 김신부로부터 여진의 녹음테이프를 받고 정당방위임을 절규하지만, 이미 여진은 형장으로 끌려간다. 14)

12) 1992 한국영화연감, p248, 집문당

13) 1992 한국영화연감, p255 p256, 집문당

14) 1992 한국영화연감, p274, 집문당

표현양상: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을 사용. 단순히 소재차원에서 사용함. (멜로물 분류)

14). 영화 < 제3구역 >

제작년도: 1991

유니콘은 번듯한 기업이지만 국제적으로 손잡고 마약밀매와 요인암살을 저지르는 검은 조직이다. 여기에는 조직의 후계자인 기철과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철호가 버티고 있다. 한편 형사반장 민규는 이들의 검은 내막을 파헤치기 위해 단신으로 노력하지만, 인터폴 국장까지 포섭한 이들에게 아내와 함께 무참히 살해 당한다. 반항아이면서도 아버지와는 강한 부자간의 정을 가진 민규의 아들 강철은 자신의 오토바이클럽을 취재 하던 여기자 민아와 사랑하는 사이다. 민아의 끈질긴 추적으로 얼마전에 사라졌던 킬러로 위장해서 유니콘에 침투한 강철은 조직의 심장부에서 기철과 철호를 일망타진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15)

표현양상: 마약의 악의 개념 전달 중점. 마약 밀매단을 악의 상징으로 설정.

마약이 주요한 소재로 이용. (범죄, 수사물 분류)

1992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15). 영화 < 복수혈전 >

제작년도: 1992

주먹으로 다져진 태영은 디스코텍을 운영하며 비교적 건전하게 살아가는 젊은이이다. 그에게는 인혜와 함께 제과점을 하며 도움을 주는 의형제인 동생 준석이 있다. 마약조직의 두목 마건수는 마약거래 장소로 디스코텍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태영이 이를 거절하자 태영에게 마약을 주사한 뒤 경찰에 밀고해 구속되게 만든다. 그후 출감한 태영은 마건수의 아들 마태호를 습격하고, 이에 마건수는 준석과 인혜를 해치우려는 계략을 꾸민다. 마건수에 의해 고문으로 준석이 죽고 모든 것을 마건수 일당에게 빼앗긴 태영은 최후의 일전을 결심, 적절한 시간에 경찰의 출동을 부탁하고 마건

수, 마태호를 맞아 혈전을 벌인다. 16)

표현양상 : 선악 이분법에서 마약을 차용. 소재로서의 마약.

악의 상징으로서의 마약. (범죄, 수사물 분류)

16). 영화 < 비처럼 음악처럼 >

제작년도: 1992

사랑의 아픔이나 이별의 절망, 외로움 등을 노래를 통해서 절규하는 가수 현식은 레코드와 라이브 무대를 통해서만 팬들과 만나는 언더그라운드 가수이다. 프리랜서인 사진작가 인경이 무대에서 열창하는 현식을 카메라에 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현식은 인경을 통해 가수로서 느끼는 고독감이나 무대에서의 외로움을 잊게 되지만, 인경은 현식에게 점점 혼란을 느끼며 갑작스런 청혼을 피해 일본으로 떠난다. 인경이 떠난 후 현식의 외로움은 더욱 커지고 공허를 술로 달래며 환각상태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현식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하나 마약상용 혐의로 구속되어 부인과 이혼하고 만다. 출감 후 재기 콘서트의 성공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지만 절망적인 폭음은 계속된다. 죽음을 예감한 현식은 마지막 녹음을 위해 각혈을 하면서까지 마이크 앞에 서지만 절망, 좌절, 사랑, 이별, 죽음까지도 그의 삶은 노래로만 남게될 뿐이다. 17)

표현양상: 실화를 바탕으로 가수의 마약 중독 장면 등장.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을 사용. (멜로물 분류)

17). 영화 < 여비서클럽 >

제작년도: 1992

대경실업 이사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혜경은 선배 성희의 돌연한 죽음에 의심을

15) 1992 한국영화연감, p247, 집문당

16)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17)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품는다. 학창시절 스키선수까지 지냈던 성희가 스키장에서 실족사한 것. 한편 혜경은 여비서들의 모임이 열리는 호텔의 영업담당 직원인 영민을 알게 되지만 외국 바이어 접대에 불려나가고, 중역들의 노리개가 된 자신의 처지때문에 그를 멀리한다. 그러나 영민의 진심어린 마음에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그와 함께 성희의 죽음을 해결하기로 한다. 성희가 오랫동안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회장과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안 혜경은 회장에게 의심을 품고 접근할 기회를 노리던중 회장이 머물고 있는 별장으로 간다. 산속을 헤매던 혜경은 회장에게 구출되고, 혜경에게 관심을 갖게된 회장은 그녀를 비서로 특채한다. 회장실 비서로 근무하면서 가까이에서 회장을 지켜보던 혜경은 그가 마약중독자이며, 성희를 죽인 범인임을 확신하고 물적증거를 찾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눈치챈 회장에게 혜경은 납치당하지만 별장까지 추격해온 영민에게 구출되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 18)

표현양상: 마약에 대한 악의 개념을 이용. 마약 중독자 등장. (멜로물 분류)

18). 영화 < 황홀한 유혹 >

제작년도: 1992

충일의 분별없는 성적 쾌락의 희생물이 된 동생 수경의 복수를 위해 충일과 결혼한 미경은 남동생 준호, 김비서를 꺾어 살인사건들을 계획한다. 충일과 만나는 여자들을 충일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교묘히 죽여 충일을 그 사건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맞추는 것이다. 미경의 이러한 계획을 모르는 충일은 자기가 사귀는 여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김비서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김비서가 충일의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자, 충일은 공포에 떨며 술과 마약으로 서서히 허물어져 간다. 그리고 미경은 충일에게 자신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충일을 칼로 찔러 죽이고 정신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쌍둥이 동생 수경을 찾아가 아직도 현실을 찾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동생 준호와 삶의 도피를 위한 출국길에 오른다. 19)

표현양상: 공포심을 극복하는 마약의 환각 작용을 강조함.

소재차원에서 사용됨. (멜로물 분류)

¹⁸⁾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19). 영화 < 특명 미녀군단 >

제작년도: 1992

베트남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혀있던 한국계 샌디, 수지 자매는 그곳에서 만난 마리아,티나,구엔메이 등과 탈출에 성공한다. 무사히 마닐라에 도착하여 각자의 일을 찾아 정착하지만 유독 구엔메이만이 악당의 소굴에 빠져 마약과 매춘으로 몸을 망친다. 어느날 우연찮게 구엔메이가 일본인 손님을 살해하자 그 일로 인해 조직의 정체가 폭로될 것을 우려해 그녀를 살해한다. 나머지 네명의 여자들은 구엔메이의 복수를 결심하고 범죄조직에 대항한다. 복수하는 과정에서 수지와 티나가 차례로 살해당하고 샌디와 마리아는 그들의 불법적인 일을 일삼는 패거리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기밀서류를 탈취하는데 성공하여 일당들을 외판점으로 유인해 격전을 벌인다. 20)

표현 양상: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을 사용. (범죄, 수사물 분류)

20). 영화 < 요절복통 신양반댄 >

제작년도: 1992

왕근은 농장주인 국광의 서자로 강한 사내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같은 농장의 관리인 용팔이의 딸 웅녀도 강한 음녀의 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왕근의 아버지 국광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자 농장의 모든 소유는 국광의 친아들 창식에게 돌아가고 갑자기 많은 돈을 상속받은 창식은 허랑방탕 돈을 쓰고 지내다가 결국 마약중독되어 비참한 최후를 장식한다. 그로인해 왕근이도 타의로 상속자가 되는데 무식한 왕근을 교육시켜 회장으로 만들려고 윤정이란 선생이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굴레속에 빠져들기를 거부하는 왕근은 돈과 명예를 버리고 웅녀와 노모를 모시고 산속으로 들어가 농군으로 일생을 보낸다. 21)

표현양상: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을 사용. (코믹물 분류)

19)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20)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21)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21). 영화 < 암흑가의 무소속 >

제작년도: 1993

창당을 앞둔 사무실에 최회장 수하의 조직폭력배들이 몰려와 테러를 감행하는 광경을 목격한 철민은 그들과 시비가 붙어 일대 결투를 벌이게 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최회장 조직에서는 철민을 찾아 나서는데 최회장의 수하중 하나인 창기는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중 철민을 만나 우정을 나눈다. 철민을 노리던 조직의 칼에 철민이 사랑하는 소희의 동생 찬우가 다치게 되자 사건은 점점 확대된다. 기자들이 사건을 파헤치려하자 최회장은 정치권력을 이용, 철민을 히로뽕 복용자로 몬다. 격분한 철민이 최회장 조직에 복수를 감행,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정치권력은 최회장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다. 22)

표현 양상: 선악 이분법에서의 마약의 사용.

마약의 악의 개념. (범죄, 수사물 분류)

22). 영화 < 웨스턴 예비뉴>

제작년도: 1993

미국 이민 2세 지수는 웨스턴 예비뉴에서 김스 마켓을 운영하는 아버지 창익과 어머니 그리고 오빠 프랭크와 바비와 살아간다. 한국인의 전형적인 가치관과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창익의 처세술과 이기심이 강한 프랭크에 비해 자신의 삶과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바비는 호텔 운전수로 일한다. 한편 지수는 전공인 의대를 그만두고 평소 꿈꾸던 연기자의 길을 택해 뉴욕으로 떠난다. 뉴욕의 드라마 스쿨에 입학한 지수는 백인 친구 스티븐과 동거하면서 연기공부에 열중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점 황폐해 간다. 그러던 중, 뉴욕의 허름한 창고 클럽안에서 지수가 연기한 작품 발표회가 있던 날 그녀는 스티븐의 비열한 행위와 이방인에 대한 조롱을 겪은 후 코카인과 프리 섹스, 바디 페인팅 등 이색적인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확대한다. 결국 지수는 가족들이 있는 웨스턴 예비뉴로 돌

22) 1994 한국영화연감, p252, 집문당

아오는데, 여전히 바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창익과 킴스 마켓의 종업원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흑인 루이스, 지수의 어릴적 친구이면서 루이스의 아들인 노만 앞에 폭동의 전조인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난다. 재판 결과로 인해 흑인 폭풍이 일어나고, 이 폭동은 웨스턴 애비뉴를 잿더미로 만들면서 킴스 마켓은 폭풍의 중심부에 놓이게 된다. 23)

표현양상: 이국적 문화로서 마약소재를 사용. 악의 개념 포함.

(멜로물 분류)

23). 영화 < 투캅스>

제작년도: 1993

조형사와 강형사는 한팀을 이루었지만 두사람은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다. 원리원칙을 앞세우며 정석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강형사에 비해 조형사는 능청스럽게 세상만사에 잘 적응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서를 수원이 찾아온다. 그녀는 강형사에게 정체불명의 피한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강형사는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위해 수원의 아파트를 방문하고 협박전화에 시달리는 수원의 모습을 발견한다. 두형사 사이에 등장한 미모의 여인으로 인해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24)

표현양상: 마약밀매단과 형사의 마약 거래현장 등장. 부정축재표현에 마약소재를 사용.
(범죄, 수사물 분류)

1994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영화

24). 영화 < 매춘 4 >

제작년도: 1994

마약사범으로 감옥생활을 한 창길은 출감후 새생활을 설계한다. 그런 그에게 창녀

23) 1994 한국영화연감, p235, 집문당

24)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인 춘자의 존재가 다가오고 그녀에게 창길은 서서히 끌리는 감정을 갖게 된다. 한편 과거 창길의 조직 보스였던 불독은 창길에게 조직에서 일할 것을 강요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이에 화가 난 불독은 그를 함정에 빠지도록 계락을 짜고, 격분한 창길은 과실치사를 가장해 불독을 살해한다. 춘자는 창길이 과실로 살인한 것으로 알고 그와 함께 창녀촌을 탈출하는데, 처음 춘자는 창길이 가진 거액의 돈을 보고 그를 따라 나섰지만 점점 그를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경찰에 쫓기는 그들은 이제 더이상 갈 곳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고향을 찾아가지만 고향에서도 그들을 반기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전과자와 창녀라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앞에서 그들은 분노대신 슬픔을 느끼게 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린다. 25)

표현양상: 마약 조직원등장, 마약표현 장면은 없음. (에로물 분류)

25). 영화 < 두목 >

제작년도: 1994

해방직후의 격동기. 주먹세계의 두목 강철민이 감옥에 있는 사이에 보스들은 마약 등의 약물을 취급하고 시전의 영세업자들을 괴롭히는 부정을 일삼는다. 강철민은 출소하자마자 불법약물의 거래를 금하는 율법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수입원인 마약거래를 금지당하자 군소파들은 모반을 꾀한다. 군소파들의 우두머리인 천수는 강철민을 살해하고자 한다. 그 후 정치깡패로 둔갑한 천수일파는 날로 세력을 확장시킨다. 한편 강철민의 인간성과 용맹성에 매료된 용팔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한다. 26)

표현양상: 해방직후의 마약거래를 소재로 사용. (범죄,수사물 분류)

1995년 제작된 마약류 포현영화

해당영화 없음

25) 1995 한국영화연감, p251, 집문당

26) 1995 한국영화연감, p251, 집문당

1996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영화

해당영화 없음.

1997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영화

26). 영화 < 테러리스트 2 >

제작년도: 1997

홍콩을 거점으로 동남아 일대에 마약을 공급하던 검은 조직 삼합회의 마약공급책 양도식, 안기웅 등 5인조는 교묘한 트릭에 걸려들어 5백억 상당의 헤로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5인조 중 한 명이 헤로인의 일부를 몰래 팔려다가 민완 형사 도훈에게 꼬리가 밟히면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27)

표현양상: 선악 이분법으로서 사용. 범죄수단(악)의 화신으로서 마약표현. (범죄, 수
사물 분류)

27). 영화 < 뽀아종>

제작년도: 1997

서린은 어린시절 극장에서 엄마에게 버려진 후 밤거리에서 술취한 남자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는 꽃뱀으로 살아간다. 편집증적인 형사 영수는 서린을 사랑하지만 그 방법은 더없이 잔혹하다. 어느 날 밤, 불면증에 시달리는 택시운전수 정일은 서린을 태우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내린 뒤 자신의 손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서린 역시 정일의 가방에 들어 있는 녹음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순수함에 끌린다. 그러던 중 여수가 서린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려는 것을 발견한 정일은 영수와 싸움이 붙지만 흠씬 얻어 맞기만 한다. 영수의 눈을 피해 달아난 서린은 쓰러져 있는 정일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면서 서로에게 빠져들기 시작한다.

28)

표현양상: 마약의 악의 개념강조 (멜로물 분류)

28). 영화 < 불새>

제작년도: 1987

불우한 과거를 숨긴 채 마카오를 떠돌던 영후는 친구 윤과 함께 간 커지노에서 재벌 2세 강민섭을 만난다. 민섭과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고 정사를 나누던 윤이 죽자, 영후는 민섭의 시체 유기를 부추긴다. 1년후, 민섭 대신 도피생활을 해 오던 영후는 귀국하여 민섭을 찾는다. 그리고 야망을 위해 민섭의 충실한 그림자가 된다. 민섭은 배다른 동생 미란이 유산 상속을 위해 미국에서 돌아오자 영후에게 그녀의 감시를 맡긴다. 미란은 막무가내로 영후를 유혹하고 영후는 그녀의 마음을 이용한다. 한편, 이기적이고 잔인한 민섭의 성품을 알게 된 현주는 영후에게 마음을 열지만 미란과 영후는 결혼을 발표한다. 그러나 영후는 현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29)

표현양상: 코카인 흡입 장면 등장. 쾌락의 도구로서 마약을 묘사. (멜로물 분류)

1998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29). 영화 < 블루스 >

제작년도: 1998

가난한 고학생 준구와 그의 어릴적 친구인 전달 근태, 그리고 사기꾼으로 잔뼈가 굵은 마대영은 각기 다른 성장환경에도 공동의 목표인 돈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비리형사와 결탁해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마대영은 암흑가의 짙음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마약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돈을 가로챌 음모를 꾸민다. 한편 준구는

27)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28) 1998 영화연감, p264 p265, 집문당

29) 1996 영화연감, p262, 집문당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술비를 사랑하게 되면서 어긋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 애쓴다. 그러나 마대영은 집요하게 준구를 끌어들인다. 마침내 세 사람은 마약거래를 마친 모사장의 아파트를 덮피는데 형사를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모사장과 짝눈을 죽이게 된다. 단순 사기범에서 살인범이 되어버린 이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수출용 컨테이너안으로 숨어든다. 30)

표현양상: 마약밀거래 표현. 금전적 가치로서 마약소재 다룸. (범죄, 수사물 분류)

30). 영화 < 물위의 하룻밤 >

제작년도: 1998

캐나다 투자회사에 입사한 '백성하'. 유색인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질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딜러로 성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던 성하는 회사를 파산상태로 몰아가고 결국 해고통지를 받는다. 절망에 빠져 점점 술과 도박에 빠져드는 성하. 방황의 길에 들어선 성하는 우연히 피비라는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낸다. 피비는 어린시절 양아버지에게 성적학대를 당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리의 여자. 피비에게 데킬라와 섹스, 마약은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이자 고통을 잊기위한 유일한 탈출구이다. 타국에서 살아가며 항상 이방인으로서의 고독과 방황을 느끼던 피비와 성하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어려운 곡예와 같은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잠시. 피비는 뜻밖에 찾아온 과분한 행복에 불안해 하고 성하와의 행복이 자신때문에 깨질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또 다시 술과 거리를 방황하게 된다. 결국, 피비는 가슴깊이 남아있는 상처를 지우지 못한다. 31)

표현양상: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마약. (에로물 분류)

31). 영화 < 바이 준 >

제작년도: 1998

준, 채영 도기는 이제 곧 성인이 될 열아홉살짜리 아이들이다. 준은 이들의 리더이자 채영의 애인이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을 마감하고 자유의 세계로 향하기

³⁰⁾ 1997 한국영화연감, p280 p 281, 집문당

위한 멋진 성인식을 함께 준비한다.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던 성인식은 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치러지지 못한다. 열아홉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스물한 살이 된 도기와 채영. 이들은 자신들의 우상 준을 마음속에 묻어 둔 채 힘겨운 젊음을 지탱해 나간다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준의 환영을 지우지 못해 섹스와 알콜로 허전함을 채우고 마리화나를 피우며 현실의 불안을 잊는 두사람. 서로 사랑을 느끼지만 준의 기억으로 인해 둘 사이는 늘 어색해진다. 채영은 망프과는 달리 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기 또한 항상 자신이 준의 대타인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32)

표현양상: 대마초 흡입장면 등장. 마약에 대한 선악개념 없음. 젊은이의 방황의 상징 소재로 사용. (멜로물 분류)

1999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32). 영화 < 세기말 >

제작년도: 1999

37살의 시나리오 작가 두섭은 여관방에서 동화 같은 멜로 드라마를 쓰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겨우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는 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내용이 지워지고 그는 망연자실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기가 탈 뻔했던 총알택시가 교통사고로 박살이 난 것을 본 두섭은 이제야말로 진정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써야겠다고 결심한다.

21살의 여대생 소령은 부도덕한 중년남자 천과 원조교제를 한다. 천은 소령과의 관계 후 10만 원권 수표 3장을 소령에게 준다. 이중적인 삶을 살며 혼란 속에 맞은 스물한번째 생일날, 소령은 친구 미나의 소개로 만난 천의 아들 현일과 마약을 하게 되고 그녀의 삶은 점점 추락해간다. 33)

표현양상: 마약 흡입장면 등장. 타락의 상징으로 마약소재 사용.

마약 흡입후의 느낌을 몽환적으로 표현. (사회물 분류)

31) 인터넷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32) 1997 한국영화연감, p279, 집문당

33) 2000 한국영화연감, p158, 집문당

33). 영화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

제작년도: 1999

시작도 끝도 없는 하루를 보내는 강력반. 우형사는 이성보다는 직관과 본능에 충실한 베테랑 형사다. 과격하기로 악명 높은 서부 경찰서 강력반 내에서도 위험인물로 지목될 만큼 난폭하지만 일에 대해서만큼은 광기에 가까운 끈질긴 집념을 보이는 우직한 사나이. 어느날 백주의 도심을 붉은 피바다로 만든 대담하고도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사건의 배후에는 마약 거래를 둘러싼 조직의 마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서부경찰서 강력반은 비상이 걸린다. 사건 현장 부근을 매일 이 잡듯이 뒤졌으나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는 나날들이 흘러간다. 그러던 중 잠복 도중 만난 가물치에게서 정보를 캐내 살인에 가담한 짱구와 영배를 검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34)

표현양상: 마약 밀매단의 등장은 표현. 마약류거래 또는 사용은 없음. (범죄, 수사물 분류)

2000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34). 영화 < 진실게임 >

제작년도: 2000

10대 팬들의 환호성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조하록의 콘서트장. 하지만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가슴에 주사기를 꽂힌 채 쓰늘하게 발견된다. 사인은 약물과다복용. 사건 직후 조하록 팬클럽 회장인 다혜는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해온다. 이 사건을 맡은 조 검사는 좌천의 위기감을 느끼고 치밀하게 수사한다. 다혜를 조사하던 중 그녀의 영민성을 발견한 조 검사는 주변인들의 엇갈리는 진술과 석연치 않은 다혜의 모습에서 사건에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사건 내부에 쏫불파티라는 피학적 성행위와 약물복용에 매니저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35)

34) 2000 한국영화연감, p165 p166, 집문당

35) 2001 한국영화연감, p204, 집문당

표현양상: 마약 흡입 장면 등장. 연예인의 마약 사용실태를 보여줌. (스릴러물 분류)

35). 영화 < 컷 런스 딥-THE CUT RUNS DEEP >

제작년도: 2000

벤은 한국인 어머니와 헝가리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며 무료하게 일상을 보낸다. 우연히 한국인 갯단 보스 J.D를 만나 경찰의 잠복사실을 알려준 벤은 J.D에 의해 갯단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진다. 벤은 강한 J.D를 동경하고 점점 폭력과 마약의 세계에 빠져들고, 평소 흠모하던 고급 콜걸 미나에게 고백하고 미나는 그를 받들인다. 어느 날 J.D가 FBI를 살해하는 일이 생기면서 갯단은 보스를 잃고 와해되기 시작한다. 36)

표현양상: 갯문화의 하나로 폭력과 대치되어 사용함. 여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페락과 타락의 소도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마약을 다룸. (범죄,수사물 분류)

36). 영화 < 깡패법칙 >

제작년도: 2000

한수, 태영, 유철, 강혁, 웅은 어릴적 고아원에서 자란 사이. 오랜만의 술자리에서 웅은 마약 암거래 조직 보스 홍두칠이 마약과 돈을 운반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를 함께 탈취할 것을 계획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홍두칠 일당을 제거한 후 미화를 훔치는 데 성공한 이들. 그러나 뒤따라온 홍두칠 일파와 총격전 중 웅은 죽고 유철은 부상당한 채 경찰에 호송된다. 한편 한수 등과 같은 고아원 친구인 나영은 전 고아원 원장인 민원장에 의해 킬러로 길러져 암흑세계에서 살고 있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던 유철이 죽자 경찰에서는 유철의 주변 친구들에게 특수요원을 배치한다. 사라진 돈이 웅의 일당과 관련이 있음을 안 민 원장은 나영에게 이들을 모두 살해하도록 명령한다. 한수는 집으로 찾아온 나영과 만나게 되고 나영에게서 웅이 살아있음을 전해 듣는다. 37)

³⁶⁾ 2001 한국영화연감,p207, 집문당

³⁷⁾ 2001 한국영화연감, p185 p186,집문당

표현양상: 금전적 가치와 신분상승 수단로서 마약소재 사용.

(범죄, 수사물 분류)

2001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영화

37). 영화 < 친구 >

제작년도: 2001

폭력조직의 두목을 아버지로 둔 준석, 가난한 장의사의 아들 동수, 화목한 가정에서 티없이 자란 상택, 밀수업자를 부모님으로 둔 귀여운 감초 중호. 넷은 어딜 가든 함께 했다. 흠친 플레이보이지를 보며 함께 길길거렸고, 이소룡의 브로마이드를 보며 경쟁하듯 흉내냈고, 조오련과 바다 거북이 중 누가 더 빠를까하며 입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푸르게만 보였다. 여드름이 금새라도 터질 것 같던 18세. 큰형처럼 친구들을 다독겨려주는 준석, 준석에게 열등감을 가진 동수, 전교 1, 2등 자리를 다투던 상택, 출싹대지만 없으면 심심한 중호. 어느 날, 근처 여고의 그룹사운드 '레인보우'의 공연을 보러가고, 그곳에서 상택과 준석은 싱어 진숙에게 홀딱 반한다. 상택의 마음을 안 준석은 일부러 상택과 진숙을 만나게 해준다. 중호와 상택은 대학에 진학했다. 둘은 대학생이 된 이후 연락이 끊겼었던 준석과 동수를 찾아갔다. 동수는 어찌된 이유인지 감옥에 수감돼 있었고, 준석은 어머니를 여원 충격으로 마약에 깊이 빠져있었다. 그리고 상택이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진숙이 준석의 곁에 있었다. 그들의 20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부친의 조직내 행동대장이 된 준석, 준석을 배신하고 새로운 조직의 행동대장이 된 동수, 미국 유학을 앞둔 상택, 결혼하여 뒷집 주인장이 된 중호녀석... 상택은 유학길에 오르기 전,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끝내 준석과 동수는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들을

부산땅에 남기고 떠나는 상택은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38)

표현 양상: 주인공의 마약 흡입장면 등장. 타락과 악의 상징으로 마약소재 사용.

(범죄, 수사물 분류)

2002년 제작된 마약류 표현 영화.

38). 영화 < 공공의 적 >

제작년도: 2002

잠복근무 중이던 철중은 전봇대 뒤에서 불일을 본다. 그 때 철중과 부딪히는 검은 그림자. 철중은 비도 내리고 똥도 묻은 김에, 가차없이 달려가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휘청이며 밀려가는 사내. 다시 철중이 주먹을 날리려는데 회변득이는 물체가 철중의 눈밑을 때리고 튕겨나간다. 철철 흐르는 피에 눈을 감싸쥐고 주저않는 철중. 일주일 후, 칼로 난자당한 노부부의 시체가 발견된다. 그러나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시체를 무심히 보던 철중에게 문득 빗속에서 마주쳤던 우비의 사내가 떠오른다. 그 칼! 철중이 분노를 삭히며 보관했던 칼 한자루. 그의 칼은 시체에 새겨진 칼자국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는 기억한다. 우비를 입은 그 남자의 뒷모습과 스쳐간 느낌을. 철중은 펀드매니저 규환을 만난다. 그리고 그가 직감적으로 살인자임을 느낀다. 아무런 단서도 없다. 철중은 단지 그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미행에 취조, 구타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잡으려 한다. 물론 규환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돈과 권력은 그의 편이다. 그는 쓸데없는 방해물인 철중을 보직에서 박탈시킨다. 그러던 중 또 다시 살인사건이 발생,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데. 둘의 싸움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다. 39)

표현양상: 마약 흡입에 대한 묘사없음. 악역 형사의 마약탈취로서 금전적 가치로서

표현.(범죄, 수사물 분류)

³⁸⁾ 인터넷 필름스 <http://films.hitel.net/>

39). 영화 < 정글쥬스 >

제작년도: 2002

마약거래에 나선 기태와 철수는 거래가 엉망이 되어 겨우 몸만 살아서 돌아온다. 하지만 거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줄지에 2천만원을 조직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백방으로 동분서주하며 돈을 구해보지만 어림도 없는 이들에게 마약 한봉지가 굴러들어온다. 우연찮게 얻은 마약이지만 상황이 이들을 마약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게 되고 막판까지 굴러간 상황은 이들은 급기야 마약을 팔아서 한밑천 잡자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마약을 처리하기 위해 부산까지 간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조직의 행동대장 민철형님과 민철을 쫓고 있었던 경찰이었다. 40)

표현양상: 마약밀매단과 마약 흡입 표현함. 마약에 대한 선악의 개념 사용하지 않음
금전적 가치를 통한 신분상승 수단으로 마약을 표현함. (코믹물 분류)

40). 영화 < 2424 >

제작년도: 2002

일자무식 단순극치, 잔머리만 살아 도는 마약밀매단 넘버 2 박태호가 300억 짜리 '물건'을 고추장 단지 속에 꼭꼭 숨겨 해외로 24를 간다. 조직 소탕에 혈안이 된 검찰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위장 잠입, '결정적 증거'를 잡는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작전명 2424! 조용히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사고뭉치 초짜 검사 최두철! 기를 쓰고 작전에 지원하더니 적지에 들어서기 무섭게 이삿짐을 하나 둘씩 작살내고 만다. 물증은 고사하고, 박태호의 담배 심부름에 온 동네 뛰어다니기 바쁜 최두철, 설상가상 진짜 이삿짐 센터 사장 한익수와 싸움까지 붙어 눈썹을 몽땅 날리는 아픔까지 겪는데... 좌충우돌 고군분투 끝에 간신히 이삿짐 트럭을 통째로 꺾어버리는 데 성공한 검찰팀, 하지만 문제의 단지 속에서 나온 것은 100% 조선된장 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300억 짜리 '물건'. 박태호 역시 무소식 감감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파

39) 인터넷 필름스 <http://films.hitel.net>

40) 인터넷 필름스 <http://films.hitel.net/>

트를 뒤엎기 시작한다.41)

표현양상: 마약범죄조직이 등장하지만 마약거래 또는 사용의 표현 없음.

금전적인 가치로서만 마약소재 사용. (코믹물 분류)

저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향후 우리 영화의 제작에 있어, 마약사용 묘사나 효과를 모호하게 또는 상상력을 부추기거나 미화시키는 것, 마약사용의 묘사 및 서술이 사회적인 가치를 결여한 것, 마약사용의 묘사 및 서술기법이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금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마약의 위험성(위해성)을 호도하거나, 긍정적 형태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기준으로서의 마약류소재 표현에 관한 기준개념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인터넷 필름스 <http://films.hitel.net/>

V. 결론

저자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제작된 한국 영화 속에서 마약류가 등장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약류를 소재로서 다루는 중요도 또는 비중이 낮거나 적은 편이며 ‘범죄, 수사물’에서 마약 밀매조직을 표현하기 위한 부속도구로서의 표현이던지, 이른바 ‘멜로물’에서 주인공의 갈등과 파국을 묘사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고 본다. 영국 작품인 <트레인 스포팅>이나 미국 작품인 <레퀴엠>처럼 마약 그 자체가 영화의 주제와 소재를 장악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향은 관객들이 마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영화들의 등장이 있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마약류의 환각 상태 표현에 집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향의 영화들은 마약류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해악적인 표현보다는 도취되는 그 순간의 쾌락(pleasure)과 유혹성(attractiveness)에 집중한다. 따라서 환각 기능 또는 작용 묘사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심미적 기법으로 메시지 전달에 따른 자유로운 해석으로 연결시킨다. 마약이 가진 환각 작용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있어서 이제 고전적이라 할 수도 있는 중독자에게 오는 갈등과 파국의 구조속에 절망감과 상실감을 표현하는 소재 보다는, 마약에 중독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에 두지 않고 주변문화, 또는 구조에 두는 설정들이 나타났다.

두 번째 경우는 일확천금의 대상으로 마약류를 소재로 사용하는 영화들인데, 이들 영화들은 마약의 조직적인 불법유통을 거쳐 많은 중독자 삶을 파괴하는 고뇌의 표현 대신에 통해서 마약이 가진 상징적인 일확천금성을 노리는 단순악의 개념수준에서의 표현에 머문다고 본다.

최근의 추이에 따라, 향후 한국 영화에서 마약류의 표현 방식은 다양해 질 것이다. 우리의 영화들도 최근의 부산국제영화페스티벌에서 보듯이 아시아의 칸느영화제 (프랑스 르 휘가로, 2002.11.23)로 불릴 정도의 성장 추세에 있고 할리우드 취향의 한국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으며, 그를 통한 자본여력의 확보로 더욱 우리 영화는 대중성과 흥행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 동시에 오락성과 건전성의 조화를 더욱 모색하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과 젊은 층의 관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우리 영화시장 구조에서, 또한 젊은 층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즈음에, 그것들이 가진 유혹성(attractiveness)을 전달 또는 전이할 수 있는 여지를 영화매체를 통하여 심미적으로 표현될 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마약으로 인한 위해도, 그 경계 또는 적정성을 다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동민,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p 14

1990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1

1991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2

1992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3

1993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4

1994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5

1995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6

1996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7

1997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8

1998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1999

1999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2000

2000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2001

2001 한국 영화연감, 집문당, 2002

마약·뇌·문명, 박희준 역, 정신 세계사, 1991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 전략」, 2001.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991-2001)

민성길 저, 「약물남용」, 중앙문화사, 1998.

이윤로 편저,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문음사, 1997.

주왕기, 「약물남용」, 지식 공작소, 1994.

최영남, 「유해화학물질의 이해」, 보안수사연구소, 200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교육 교재」,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 [편], 1997.

<논문>

고성균, “한국의 마약류 통제정책에 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민성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신의기, “국제법상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윤성태,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관계 고찰”, 치안정책연구, 1997. 8.

윤종조,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정선태, “마약류 사범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조병인,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한성대학교, 2002년 춘계학술회의
논문, 2002.

조은석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1.

최광명, “마약류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최진욱, “마약류범죄의 최근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국내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를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유지나, 제한상영관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연구소, 2000

강병규, 「1980년대 한국영화산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 논문, 1991

고제규, 「국가의 영화정책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7

권미정, 「90년대 한국영화의 제작방식 연구: 자본과 인력의 변화, 그 영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석사논문, 1995

길민정, 「한국영화산업의 자본변동에 따른 경제적 특성 연구: 1990년대 중반 금융자본
의 유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8

김동호, 「한국영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9,

김병재, 「한국 영화산업의 연구-미국 영화산업의 직접배급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연
극영화과 석사논문, 1990

김평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석사논문, 1997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9

김혜준, 이충직, 「배급을 알면 영화가 보인다」, 한국영화연구소 연구보
고서, 1999

김혜준, 도성희, 정수완, 「아시아영화산업 현황과 지역내 협력방안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0

문화관광부, 「영상전문인력의 현황 및 진입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0

박승현, 「한국영화산업과 한국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89

박주숙,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정보방송 정책 전공 석사논문, 2000

변인식, 「한국영화산업의 마케팅 실태분석」, 고려대 경영학과 석사논문, 1976

신지영, 「199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구조, 행위, 성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신지영, 2000

유병옥, 「한국영화산업 마케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98

유지나, 김윤아, 맹수진, 이종승, 「제한상영관 도입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0

이수영,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성장과정과 산업적 특성」, 한국의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북미지역연구학과 석사논문, 1999

이현주, 「한국영화유통산업의 구조, 행위, 성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1995

임혜원, 「대기업의 영화제작 사례연구: <정글 스토리>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영화이론전공 석사논문, 1997

정유정,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의 공조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논문, 2000

조준형, 「한국영화산업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01

조재홍, 「한국의 영화산업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1986

조항제, 「방송영화쿼터의 의미와 방향, 2000년 방송편성 쿼터정책연구」, 방송위원회, 2000

주병준, 「한국영화산업의 수직적 거래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1998

최영섭외, 「문화산업 전문인력 수급대책과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홍수정, 「80년대 후반 새로운 영화산업 전략이 영화텍스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Kang, T.K. & Slikker, W Jr. (1993). Ultrastructure of Nucleus Raph Dorsalis and Hippocampal CA1 Region following Treatment with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MDMA). Final Report to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in Pine Bluff, Arkansas, also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Neuroscience in Seoul

Kang, T.K. (1991). A Survey on the Trends of Neurotoxicological Researches in Korea: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Safety Research. Vol.5

Kang, T.K. et al. (1991). Neurotoxicological studies on Drugs-Amphetamine (II):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Safety Research. Vol. 5

Kang, T.K. et al. (1990). Neurotoxicological studies on Drugs-Amphetamine (I):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Safety Research. Vol.4

<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lrti.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ba.go.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re.kr>)

필름스 (<http://www.films.hitel.net/>)

한국 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대검찰청 마약부 (<http://www.sppo.go.kr/drug/>)

필름2.0(<http://www.film2.co.kr/>)

씨네21 (<http://www.cine21.co.kr/>)

씨네버스 (<http://www.cinebus.com/>)

<기타>

프랑스 Le Figaro 지, 11.23/24, 25면.2002

Abstract

A Study on expressed aspects of narcotic-related episode in Korean Movies

Suk-Jae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rug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Tae-Gui Kang

I have assumed different aspects of viewing on narcotic-related episode which has been appeared in Korean movies produced from 1990 to year 2002.

The importance of this subject matter used in the movies were relatively low. It was rather limited but was just for describing conflict or collapse of hero in melodrama or it was used as one of the method to describe dope-peddling system in 'crime or investigation matter'.

But for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movies came out that the viewers or audiences disclaim negative understanding about narcotic-related episode. This trend could be divided into two aspects as follows.

First I would consider that there are lots of movies that focus on showing dopes in an hallucinate state. These kinds of movies much more focus on pleasure that occurs in a moment and attractiveness that narcotic-related episodes might give to the one who were used rather than just fun. Thus this brings out to the opening of different possible understanding on movies using diverse artistic or aesthetic technique specially in describing action of hallucination or it's working. The movies show that the reason why the addict could help escaping from being addicted is not because of conflict or desperation from the addict themselves but because of the culture or society surrounded by them or they live in.

Second, It is about the movies that deal with making a fortune at a stroke

by doping rather than describing one' s suffering in a desperate addicted life by doping illegal distribution.

Observing changes in last few years, henceforth the way of describing narcotic-related episodes in Korean movies would be various.

Therefore it might be the right time for us to keep searching for bringing out well-harmonized pleasure to the movies.

We are living in the society that we cannot deny the situation that over abused doping is being influenced rapidly specially in early age of adults. We can ignore that a lot of young generation who are lack of rational decision yet is the most parts in the market for movies. At this time there must be much paying attention to how successfully the media will provide freedom of one' s view or freedom of expression in arts that might convert to attractiveness and there must be further debate followed on it' s limit to be defined.